



즉시 배포용: 2024년 4월 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비상대원을 위한 정신보건 평가 시행 발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과 SUNY New Paltz의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에 따른 평가

DHSES와 뉴욕주 정신보건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19회 연계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 컨퍼런스 지원

Hochul 주지사의 10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공 안전 커뮤니티가 직면한 정신 보건 관련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 최초의 비상대원 정신 보건 수요 평가가 실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과 SUNY New Paltz의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Institute for Disaster Mental Health), 벤자민 센터(Benjamin Center) 등의 파트너십에 따른 평가로, 자발적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와 비상대원 포커스 그룹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보건 의료에 역사적으로 투자하는 가운데, 정신 보건 관련 문제로 고통받는 비상대원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뉴욕주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개인의 네트워크이며, 이번 종합 수요 평가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요 평가는 사법집행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응급요원(EMT), 911 공무원, 비상 매니저 등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DHSES와 SUNY New Paltz 직원들은 5월 14일과 5월 15일 하이드 파크의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 열리는 제19회 연계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 컨퍼런스(Annual Institute for Disaster Mental Health Conference)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뉴욕주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는 국토안전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와 함께 협력하여 재난 정신 보건 대응을 주 전역에서 시행합니다. 재난 대응 운영을 지원하고 즉각적인 심리적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재난 이후 초기 및 예상되는 스트레스 반응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해 재난 정신 보건 대응요원이 활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OMH는 연방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 정신 보건팀 개발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지방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DHSES는 OMH, 연구소와 협력하여 **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가 진행하는 동료 코스 등 추가 비상대원 정신 보건 관련 훈련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팀에는 정서적, 사회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포함됩니다. 동료 지원팀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 및 대형 사고를 겪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안전 조직 내에서 운영됩니다.

지난 주, 훈련 센터는 오리스카니에서 *Assisting Individuals in Crisis* 및 *Group Crisis Intervention* 등 두 번의 동료 지원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세션 모두 만석이었고 추가 훈련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대원들은 매일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됩니다. 비상대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장비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신 보건까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는 주 전역의 비상대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정서적 복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대원들은 업무 중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만약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수요 평가를 통해 비상대원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받지 못하고 중요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SUNY New Paltz 재난 정신 보건 연구소 사무국장인 **Amy Nit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뉴욕의 비상대원과 응급 서비스 공무원들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 발휘는 물론 개인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DHSES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뉴욕의 정신 보건 인프라를 적절하게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